

한글 로마자 번자법(翻字法)과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表音法)

- 두 가지 서로 다른 표기방식 대비예시(對比例示)를 곁들여 -

유 만근(성균관대)

<차 례>

실마리.

- | | |
|-----------------|-------------------|
| 1. 한글 로마자 번자법. | 3. 두 가지 표기법 대비예시. |
| 2.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 | 휘갑. |

<Abstract>

Two Ways of the Romanization of Korean

- Transliteration of Hanngul and the Transcription of Korean Sounds -

Mahn Gunn Youe

The writ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clear distinction between transliteration and transcription. Romanization problems in Korea have been entangled for decades by confusing and mixing those two.

For the transliteration of Hanngul a new system with the utmost simplicity and perfect convertibility is suggested here.

For the transcription of Korean sounds another system is suggested which can transcribe even the chroneme as well as all the phonemes. So it surpasses the current Hanngul orthography.

Korean sentences containing many pairs of homographic heteronyms are romanized in the two ways side by side for the contrasting of the two systems.

실마리

이 글 목적은 성격과 용도가 서로 다른 ‘한글 로마자 번자법(翻字法)’¹⁾과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表音法)’을 각각 따로 고안하여 그 용례를 나란히 대조하여 보이려는 것이다.

우리말 로마자 표기방식은 이 두 가지 표기법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가령 우리 말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우리말 고유명사 발음을 대강만 전달하는 것으로 족한 민간 개개인 사적(私的) 표기법에서는 구태여 음운학적 원칙을 치밀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표기에서는 두 음소가 표기상 구별 안 되는 수도 있고, 같은 음소가 여러 가지 로마자로 표기되기도 한다. 게다가 외국어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어형을 정리하는 수도 있다. 가령 표기가 발음상 무난하다 해도 영어로 공교롭게 불만스러운 뜻이 된다든지 하면 적당히 손질해 고친다. 이런 표기방식에서는 철자를 개개인 취향에 맡길 일이요, 누가 강제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륙군대/선교사 인상표기법(印象表記法, impressionistic transcription)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어지간히 정확한 발음을 추구하며 꽤 일관성 있는 표기방식이지만, 대개 음운학 전문가가 아닌 외국사람들이 현지어를 깊이 모르면서 소리만 듣고 인상(印象)으로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음소에 같은 글자를 배당해야 하는 음운학적 원칙을 크게 어기는 수가 많다. M-R(머큐-라이샤우어)체계도 고작 거기에 속한다. (유만근, 1996b 참조)

사적(私的) 표기법이나 인상(印象) 표기법 또는 한글 맞춤법 복원용 로마자 표기법(transliteration, 翻字法) 외에 정규 언어학적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음운학적으로 보면, 현행 한글맞춤법은 긴 모음과 사이 된소리 표기미비(表記未備)라는 두 가지 치명적(致命的) 결점 때문에 정서법(正書法)으로서 제 구실을 다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동음어(同音語)가 아니라 발음이 달라 말할 때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단어들이 한글로 적어 놓으면 똑같아지는, 이른바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가 지금 자그마치 수천 쌍에 이르기 때문에 한글전용 글, 특히 읽는 데 신속·정확을 요하는 신문논설이나 학술서적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 중 모음 길이로 뜻이 달라지는 몇 가지 쉬운 단어 예를 들면,

일(一 il) / 일(事 ihl)

1) ‘번자법(翻字法)’이라는 말 대신, ‘전자법(轉字法)’이라는 말도 쓰지만 ‘轉字’는 한글로만 적을 때 ‘電子, 篆字, 前者’와 혼동되어, 한자혼용식(漢字混用式) 글 이외에서는 별로 쓸 만한 말이 못된다.

네(너의 ne) / 네(四 neh)
 새(新 sai) / 새(鳥 saih)
 사는(買 sanun) / 사는(生 sahnun)
 적어(筆記 jaugau) / 적어(少 juhgau)
 공(功 gong) / 공(球 gohng)
 묻고(埋 moudko) / 묻고(問 mouhdko)
 금주(今週 gumjou) / 금주(禁酒 guumjou)...

이런 이음어(異音語)들은 무슨 문자로 적든지 발음차이가 드러나야 마땅한 것이고 (俞萬根 1996a 참조), 15세기 훈민정음 표기로도 모두 구별된 것이다. 다만, 연산군 이래 표음력이 떨어져 아직 그 퇴보 연장선상에 있는 현행 한글맞춤법만이 이런 것을 구별 못하고 똑같이 적고 있다. 이것은 마치 영어에서 eat/it, awed/odd, pool/pull... 을 구별없이 각각 똑같은 철자로 적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 한글 철자를 그대로 로마자로 옮겨 놓는다면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 수천 쌍이 문맥을 벗어날 때, 학식 유무와 상관없이, 아무가 보아도 발음과 뜻이 모두 끝끝내 불분명한 것이다. 한글 로마자 번자법(翻字法)과 별도로, 서양 각국 정서법(正書法) 수준의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表音法)을 아울러 세워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럼 이제부터 한글 로마자 번자법(翻字法)과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表音法)을 차례로 이야기해 보자.

1. 한글 로마자 번자법(翻字法)

여기서 제안하는 번자법(翻字法)은 현행 한글맞춤법을 그대로 로마자로 저장했다가 100% 환원하는데 쓴다는 한정된 목적을 가지고 고안한 것인데 그 특색은 로마자 26자 중 안 쓰여 잠자고 있는 글자 수를 최소화하면서(여기서는 v字 하나뿐임) 어디까지나 간결성 혹은 기계적 전환 능률성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같은 값이면 발음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 글자 대응은 다음과 같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ㅛ	ㅜ	ㅠ	
a	ai	r*	e	o	w*	u	i	ya	oa	oi	wi

フ	ク	ク	ㄷ	ㄷ	ㅌ	ㅍ	ㅍ	ㅍ	ㅈ	ㅈ	ㅉ
g	k	q	d	t	th	b	p	f	j	z*	c*

ㅅ	ㅅ	ㅎ	ㄴ	ㅁ	ㅇ	ㄹ	ㅇ (초성)
s	x*	h	n	m	ng	l	'(올린 半점, apostrophe)

♣ 보충 설명

* 'ㄹ' r

모음 'ㄹ'에 r자를 배당한 것은 크로아티아 말(Serbo-Croatian) vrlo ('벌로' : 아주, 매우), brzo('버조' : 빠른), crvenog('처베늑' : 빨간) 등에서 처럼 r자가 자음 사이에서 모음 노릇을 하는 용례를 참고한 것이다.

* 'ㄴ' w

모음 'ㄴ'에 w자를 배당한 것은 웨일스 말(Welsh) bws ('부스' : 뺨스), cwrw('쿠루' : 맥주), enw('에누' : 이름) 등에서 w자가 모음 [u]를 나타내는 용례를 참고한 것이다.

(※ 웨일스말에서 u자는 남부방언에서 [i]를, 북부방언에서 [y]를 나타냄.)

* 'ㅈ' z와 'ㅉ' c

'ㅈ'소리에 z자를 배당한 것은 이탈리아 marzo ('마르조' : 3월), grazie ('그라찌에' : 고맙다), polizia('폴리찌아' : 경찰)등에서 z자 음가를 참고한 것이다. 그리고 'ㅉ' 소리에 c자를 배당한 것은 이탈리아 piacere ('피아체레' : 기쁨), cento('첸또' : 백), cello('첼로' : 첼로) 등에서, 또는 폴란드어에서 c자가 무성 파찰음을 나타내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 'ㅅ' x

'ㅅ' 소리에 x자를 배당한 것은 스페인어 Tlaxcala('플라스칼라' : 멕시코 地名)에서 x자 음가 [s] 또는 포르투갈어 xilofone('셀로포니' : 실로폰)에서 x자 음가 [ʃ]를 참고한 것이다. 또한 x자 모양이 s자 두 개를 연상시키기 좋게 되어있다.

2.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表音法)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表音法)은 한국에 한글이 없다고 가정하고, 현대 언어학의 언어표기 방법론에 따라 현대국어 음운체계 정밀분석 토대 위에서 음소(音素)와 운소(韻素) 완전 구별 표기를 목표로 한 것이다. 그것은 표음면에서 현행 한글맞춤법을 훨씬 능가한다. 이러한 정서법(正書法)적 표음법 체계 고안을 위해 필자가 오랜 세월을 걸쳐 발음과 철자 관계를 참고한 언어는 라틴어, 불어, 이탈리아어, 중세영어, 현대영어, 화란어, 독일어, 희랍어, 노어,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국어, 힌두어(힌디), 벵갈어(벵골리), 태국어 등이다.

한글 자모(字母)와 번자법(翻字法)에 대비(對比)시켜 이 표음법(表音法) 글자배당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글 자모(字母) 옆 () 안 표기가 번자법(翻字法)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음소·운소 기호를 달아 굵은 글자로 대비시킨 것이 표음법(表音法)에 따른 것이다.

ㅏ(a): a /a/	ㅑ(ah) /a:/
ㅓ(ai): ai /ɛ/	ㅕ(aih) /ɛ:/
ㅗ(r): au /ɔ/	ㅛ(auh) /ɔ:/
eu /y/	ㅜ(uh) /y:/*
ㅜ(e): e /e/	ㅞ(eh) /e:/
ㅜ(o): o /o/	ㅟ(oh) /o:/
ㅟ(w): ou /u/	ㅠ(ouh) /u:/
ㅡ(u): u /u/	ㅡ(uu) /u:/*
ㅣ(i): i, y /i/*	ㅢ(ih) /i:/
ㅛ(ya): ya /ja/	ㅜ(yah) /ja:/
ㅜ(oa): wa /wa/	ㅟ(wah) /wa:/
ㅟ(oi): we /we/	ㅠ(weh) /we:/
ㅠ(we): we /we/	ㅡ(weh) /we:/
ㅡ(ui): ui /ui/	ㅢ(uih) /ui:/

ㄱ(g): g /g/	ㅋ(k): k /k/	ㆁ(q): kh /k ^h /
ㄷ(d): d /d/	ㅌ(t): t /t/	ㄷ(th): th /t ^h /
ㅂ(b): b /b/	ㅍ(p): p /p/	ㅍ(f): ph /p ^h /

ㅈ (j): j /t͡ʃ/	ㅉ (z): cz /t͡ʃ/	ㅊ (c): ch /t͡ʃ ^h /
ㅅ (s): s /s ^h /*	ㅆ (x): ss /s/	ㅎ (h): h /h/
ㄴ (n): n /n/	ㅁ (m): m /m/	ㅇ (ng): ng /ŋ/
ㄹ (l): l, r /l/	ㅇ ('): (초성 ㅇ 자는 표기 안함)	

(유만근. 1989 참조)

♣ 보충 설명

* 모음 ‘어’ /v(:)/ uh와 긴 모음 ‘으’ /ur/ uu

서울말에서 ‘어’ 자(字)로 적는 모음 음소는 두 가지인데 반(半)좁힌 모음 /v/와 반(半)넓힌 모음 /v/가 그것이다.(Youe 1986 참조). 이 두 가지 음소는 모음체계상 ‘에’/e/와 ‘애’/ɛ/가 혼동되는 방언에서는 물론 구별되지 않지만 서울말에서는 이 두 음소에다 길이운소(長韻素)까지 추가되어 실제로 ‘어’는 음운적으로 다른 네 가지 소리 v v: v̄ v̄:를 힘겹게 혼자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에서 긴 모음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가령 aa처럼 같은 글자 두 번 쓰기와 ah처럼 h字 덧붙이기가 있다. 여기 표음법(表音法)에서는 ih, eh, ah, oh, ouh...처럼 주로 h字 추가 방식을 썼지만, 한 가지 예외를 두었다. 즉 긴 모음 ‘으’는 짧은 모음 글자 u를 두 번 써서 uu로 했다.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uh를 아꼈다가 더 유용하게, 반(半)좁힌 뒤쪽 평순 긴 모음 ‘어’/v:/를 적는 데 쓰기 위해서다. 이 /v:/모음은 우리말에서 사용빈도가 아주 높다. 반면에 짧은 모음 /v/는 사용빈도가 극히 낮아서 그 예가 ‘너희, 저희, 처음, 높다’ 등 고작 너댓 개 뿐이므로 이 짧은 모음까지도 uh로 적고, 이 너댓 단어만 따로 기억했다가(영어에서 ‘John’의 경우처럼) 그 모음을 제대로 짧게 발음하면 빈도 낮은 ‘eu’표기 한가지를 아예 줄일 수 있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로마자 표음법(表音法)으로 매일 일기를 써 오는데 긴 모음 ‘어’/v:/가 들어 있는 단어는 하루 일기에서 보통 서너 번씩 자주 나오는 반면에, 긴 모음 ‘으’/ur/는 한 달에 두어 번쯤 나올까 말까 한 정도로 사용빈도가 낮다. 그래서 필자는 1997년 7월 30일부터 빈도가 /ur/보다 수십 배 높은 /v:/에 세 글자 euh를 쓰지 않고 좀더 간단한 uh를 채택해 쓰는데 아주 편리하다. 사실, euh는 외국인이 ‘어’/v:/와 다른 엉뚱한 소리로 잘못 읽을 가능성이 큰 반면에, uh의 영어 음가 /ɜ:/는 ‘어’/v:/에 비교적 가깝게 들려 발음 유도에 유리하다. 그리고 서울말에서 긴 모음 ‘어’/v:/를 ‘으’/ur/처럼 개구도(開口度)를 좁혀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서 uh를 /ur/로 읽어 버린다 해도 실제로 음성언어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긴 모음 중에서 빈도 낮은 ‘으’/ur/에만은 같은 글자 두 번 쓰기 방식으로 uu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수년간

일기쓰기 같은 실용을 통한 빈도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런 예외적 ‘妙方’(?)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너무 늦기 전에 성취한 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실은, 1980년 쯤 이 표음법(表音法) 체계를 필자가 처음 수립했을 때에, 긴 모음 ‘어’/y:/에 ur자를 배당했었다. ’80년대 초반에 성균관대에서 필자가 담당한 언어학개론, 외국어 교수법, 영작문 과목 시험문제지는 주로 이 표음법(表音法)에 따른 로마자 표기로 작성되었는데 거기서 /y:/는 ur로, /ur:/는 uh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국언어학회지 「언어」 10.1(유만근, 1985)에 나타난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더 쓰지 않았다. 그 후 1989년에 /y:/를 euh로 표기하는 체계(유만근, 1989)를 발표한 이래 필자는 그 체계를 ‘한글-로마자 대조표기 한국어 독본’ 또는 ‘서울말 발음 독본’에 채용하는 등, 7년 이상 줄곧 사용했는데, 그 경험 끝에 개선점이 눈에 띄어, 마침내 1997년 7월 30일 일기에서부터 /y:/를 uh로, /ur:/를 uu로 조정한 체계를 애용하고 있다. 필자는 서울말에서 음질(音質) 다르고, 별개 음소에 속하는 두 가지 ‘ㅣ’ 모음 표기와 써름하며 20년 가까운 시행착오와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결정한 이 방식을 평생토록 다시는 고치지 않으려니 생각한다.

* /i/ i, y

우리말에서 /i/ 모음은 사용빈도가 아주 높는데, 그 중 단어끝 /i/를 체언에서는 i자 대신 y자로 적는다. 이것은, /i/로 끝나는 순수리말 명사만도 3,500 여 단어인데 문장속에서 이런 체언들을 /i/로 끝나는 부사(약 800 단어)나 주격 조사 ‘이’와 얼른 구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길이(long, 부사): giri/gihri

나뭇이(softly, 부사): nabouhsi

길이(length, 명사): giry

나부시(裸婦詩, 명사): nahbousy

어리니(young, 부사형): aurini

이리(here, 부사): iri

어린이(child, 명사): auriny

이리(wolf, 명사): iry

<비교> 사이 say, 새(新) sai, 새(鳥) saih

* ㅅ /s^h/

우리말 ‘ㅅ’소리는 주로 ‘무성 첨기(添氣) 잇몸마찰 연한 소리’(voiceless aspirated alveolar fricative lenis)다. (Gim. 1971 또는 문승재. 1997 참조)

※ 사이 된소리는 c'로 나타내고, 덧 'ㄴ' 소리는 n-로 나타낸다.

갈 길 gal c'gil,	올 사람 ol c'sahram
한 일 han n-ihl,	할 일 hal n-ihl
앞이마 ab-n-ima	꽃노래 kho-n-norai 깃잎 kai-nn-ib

※ 음절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자를 음가 없이 사용한다.

- 1) /i/ 앞에는 y자
차이(差異) chayih (비교: 채 chaih)
- 2) /u/ 앞에는 w자
자음 jawum (비교: 점 jaum)
- 3) /g/ 앞에는 n자
선구 saunngou (비교: 성우 saungou)
- 4) /h/ 앞에는 x자
아흠 axhob (비교: 아오 <知> aho)

3. 두 가지 표기법 대비예시(對比例示)

한글 본문 다음 줄 () 안에 있는 것이 번자법(翻字法)이고, 그 아래 굵은 글자로 나오는 것이 표음법(表音法)임.

말 놀 이

(Mal Nol'i)

Mahl Nory

영이(英伊)와 영희(永喜)가 말놀이를 합니다.

(Yrng'i'oa Yrng'huiga malnol'ilul habnida.)

Yaungy wa Yuhng'hih ga mahl nory rul hamnida.

긴 소리와 짧은소리의 말을 합니다.

(Gin soli'oa zalb'unsoli'ui mal'ul habnida.)

Gihn sory wa czalbun sory'e mahl ul hamnida.

영이가 먼저 말을 합니다.

(Yrng'iga mrnr mal'ul habnida.)

Yaungy ga maunjau mahl-hamnida.

말 탄 순경 아저씨 두 분이 말을 하며 지나갑니다.

(Mal than swngyrng ajrxi dw bwn'i mal'ul hamyr jinagabnida.)

Mal than sounngyuhng ajaussy douh boun i mahl ul hamyau jihna gamnida.

“내 말은 참 좋은 말이야.”

(“Nai mal'un cam joh'un mal'i'ya.”)

“Nai mal un cham johhun mal iya.”

“내 말은 참 말도 잘들어.”

(“Nai mal'un cam maldo jal dul'r.”)

“Nai mal un cham mahl do jal durau.”

순경 아저씨들은 말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Swngyrng 'ajrxidul'un mal'ege mwl'ul mrgyrxsubnida.)

Sounngyuhng ajaussy-dul un mal ege moul ul maugyaussumnida.

영희의 차례입니다.

(Yrnghui'ui calye'ibnida.)

Yuhnghih'e chareh'mnida.

밤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Bamkoc'i ha'yahge firxsubnida.)

Bahm kodch-i hayakhe phiaussumnida.

달밤에는 허영게 보입니다.

(Dalbam'enun hr'yrhge bo'ibnida.)

Dal c'bam e nun hauyaukhe boimnida.

작년 가을에는 밤을 많이 땀습니다.

(Jagnyrn ga'ul'enun bam'ul manh'i taxsubnida.)

Jangnyaun c'gawul e nun bahm ul mahnhi tassumnida.

군밤은 맛이 좋습니다.

(Gwnbam'un mas'i johsubnida.)

Gounh bahm un mas-i johssumnida.

올해도 밤이 많이 열릴 겁니다.

(Olhaido bam'i manh'i 'yrlil grbnida.)

Ol hai do bahm i mahnhi yaullil c'gau'mnida.

겨울밤에 할머니와 함께 밤을 구워 먹겠습니다.

(Gyr'wlbam'e halmrni'oa hamke bam'ul gw'wr mrggexsubnida.)

Gyauoul c'bam e Halmauny wa hamke bahm ul gouwau maugkessumnida.

다시 영이의 차례입니다.

(Dasi 'Yrng'i'ui carye'ibnida.)

Dasi Yaungy'e chareh'mnida.

떡방아를 짰어 왔습니다.

(Trgbang'alul zih'r 'oaxsubnida.)

Taug banga rul czixhau wassumnida.

떡 가루가 눈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Trg galwga nwnclrm ha'yahge bo'ibnida.)

Taug garou ga nouhn chauraum hayakhe boimnida.

동생이 떡가루를 만졌습니다.

(Dongsaing'i trggalwlul manjyrxsubnida.)

Dongsaing i taug garou rul manjaussumnida.

조그만 손에 눈 같은 떡가루가 묻었습니다.

(Joguman son'e nwn gath'un trggalwga mwd'rxsubnida.)

Joguman son e nouhn gadthun taug garou ga moudaussumnida.

영희 어머니가 보시고 웃으시며 말리셨습니다.

('Yrnghui 'rmrniga bosigo 'ws'usimyr mallisyrxsubnida.)

Yuhngih aumauny ga bosigo ouhsusimyau mallisyaussumnida.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Dongsaing'ui nwn'esr nwnmwl'i na'oaxsubnida)

Dongsaing'e noun esau nounmoul i nawassumnida.

눈 같은 떡가루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Nwn gath'un trggalw 'wi'e nwnmwl'i trlrjrxsubnida.)

Nouhn gadthun taug garou wih e nounmoul i tauraujausumnida.

또다시 영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Todasi 'Yrnghui'ui calyega doi'rxsubnida.)

Todasi Yuhngih'e chareh ga dweausumnida.

의사 선생님이 병이 난 사람에게 병에 든 약을 주었습니다.

('Uisa srnsaingnim'i byrng'i nan salam'ege byrng'e dun 'yag'ul
jw'rxsubnida.)

**Uisa sausaing nim i byuhng i nan sahram ege byaung e dun
n-yag ul jouausumnida.**

병에 든 약을 먹고 병이 나왔습니다.

(Byrng'e dun 'yag'ul mrggo byrng'i na'axsubnida.)

Byaung e dun n-yag ul maugko byuhng i naassumnida.

큰 호랑이가 울면서 골로 들어 갔습니다.

(Qun horang'iga 'wlmyrnsr gwll'o dul'r gaxsubnida.)

Khun hohraingy ga ouhlmyaunsau gouhl lo durau gassumnida.

어머니가 마닷가에서 굴을 따 오셨습니다.

('Rmrniga badasga'esr gwl'ul ta 'osyrxsubnida.)

Aumauny ga bada c'gah esau goul ul ta osyausumnida.

나는 발이 깨끗합니다.

(Nanun bal'i kaikushabnida.)

Na nun bal i kaikud-hamnida.

여름에는 발을 치고 삽니다.

('Yrlum'enun bal'ul cigo sabnida.)

Yaurum e nun bahl ul chigo sahmida.

휘갑

윗글에 나타난 동철이음어(同綴異音語)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기법 대조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한글맞춤법과 번자법(翻字法)	로마자 표음법	漢 字	옛글	옛글 번자법 (翻字法)*
말 (mal)	mal mahl	馬 語	몰 :말	mawl :mal
밤 (bam)	bam bahm	夜 栗	· 밤 :밤	· bam :bam
눈 (nwn)	noun nouhn	目 雪	· 눈 :눈	· noun :noun
병 (byrng)	byaung byuhng	瓶 病	병 :병	byeung :byeung
굴 (gwl)	goul gouhl	石花, 牡蠣 窟	· 굴 구무(· 굴)	· goul goumou(· goul)
발 (bal)	bal bal	足 簾	· 발 :발	· bal :bal

* 옛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① ‘우리 옛글·요새말 로마글자 표기案’ (유만근. 1990)과 ② ‘杜詩 諺解 로마字 表記’ (유만근. 1991) 참조.

이 표에서 대여섯 가지 표기법중, 단어 의미와 발음 구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현행 한글맞춤법과 그 번자법(翻字法)인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서울말/표준말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에서 한글전용이나 그 번자법(翻字法) 사용은 결국 음운학적 수준 미달로 고작 ‘억지 춘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한 ‘우리말 로마자 표음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현행 한글맞춤법 개선 방향에 한 줄기 빛을 던지려는 의도가 아울러 담겨 있음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姜汎模 (1994), 「한글/한자 전자 텍스트의 로마자화 및 역방향 변환 프로그램」, 고려대 언어 정보연구소.
- 金桂坤 (1960), 국어 정서법에 관하여-長母音 적기표가 소용됨, 「한글」 126, 한글학회.
- 金福文 (1996), 새 로마자 표기안, 「교수신문」 85.
- 문교부 (197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시안, 서울.
- 문승재 (1997), 국어 'ㅅ'음가에 대한 음향학적 연구, 「말소리」 33-34. 대한음성학회.
- 宋基中 (1988),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생활」 15, 국어연구소.
- 柳京熙 (1987), 컴퓨터와 국어생활, 「국어생활」 11, 국어연구소
- 兪萬根 (1985), 새로운 '標準韓國語 基準音節表' 案, 「語文研究」 28, 一潮閣, 서울
- (1985), 標準 韓國語 精密表音 로마字 맞춤法 研究, 「언어」 10.1, 한국언어학회
- (1986), 한국어의 음소/운소 로마자 표기(Phonemic / Prosodic Transcription of Korean in the Roman Alphabet). *Proceedings of the 10th Annual Conference, AKSE, Bochum, West Germany.*
- (1989), 우리말 로마자 맞춤법 案 '89, 「人文科學」 19,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 (1990a), 우리말 로마자 맞춤법 運用例示, 「人文科學」 20,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 (1990b), 우리옛글·요새말 로마자 표기案, 「姜信沆教授 回甲紀念 國語學論文集」, 太學社.
- (1991), 杜詩諺解 로마자 表記, 「美原 禹寅燮先生 定年退任 紀念論文集」, 韓一文化社.
- (1992), 한글-로마자 대조표기 한국어 독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1993a), 우리말 同綴異音語 발음 고찰 (I)(로마자표기例示), 「한국어 연구논문」 37. KBS 한국어연구회.
- (1993b), 발음중시 국어교육론(로마자 표기 例示), 「말」 18, 연세대학교.
- (1994), 音聲言語教育의 理論과 實際 (I), (II)(로마자표기例示), 「한국어 연구논문」 38. KBS 한국어연구회.
- (1995), 우리말 同綴異音語 발음고찰 (II)(로마자표기例示), 「大東文化研究」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1996a), 우리말 표기방식 문자별 예시---IPA, 로마자, 희랍자 표기안, 「음성학 학술 대회 자료집」, 대한음성학회.
- (1996b), 우리말 로마자 正書法 制定論, 「語文研究」 90,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1996c), 우리말 同綴異音語 구별표기 案---IPA, 로마자, 한글 표기를 나란히 견주어. 이현복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음성학과 언어학」 479-510. (서울

- 대학교 출판부).
- (1997a), 우리말 로마자 표기의 바른 길 「말과 글」 70, 한국교열기자회.
- (1997b), 「한글-로마자 대조표기 서울말 발음독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李相億 (197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제 종합검토, 「言語와 言語學」7,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 (1982),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82, 「언어」 7.1, 한국언어학회.
- 李炫馥 (1971), 서울말의 모음체계, 「語學研究」 7.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81),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말소리」3, 대한음성학회.
- (1983), 로마자 표기법의 음성학적 실상과 허상, 「말소리」 6, 대한음성학회.
- 鄭寅燮 (1983), 가장 실용적인 로마자안, 「말소리」 6, 대한음성학회
- 지민제, 한성숙, 김윤기 (1996), 한국어 말소리의 길이, 「KBS 한국어 연구논문」 45, 한국방송공사.
- 崔鉉培 (1961), 「고친 한글갈」, 正音社.
- Edkardt, A. (1923),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Julius Groos, Heidelberg.
- Fabre, André (1988), Transliteration of Korean, *AKSE Newsletter 11*.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 Gale, J. S. (1931), *Korean-English Dictionary*. 3rd. ed.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Gim, S. G. (1971), *Phonetics of Korean*, 명지대학교 출판부. Seoul.
- Han, M. S. (1964), *Duration of Korean Vowel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IPA (1982),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IPA, University College London.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2), *Korea Journal 22:8*. Seoul.
- McCune, G. M. & Reischauer, E. O. (1939),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XI* (Kraus Reprint Ltd. Vaduz 1965).
- Royal Asiatic Society (1961),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8*, Seoul.
- Youe, MG Hansa (1986), On the Transcribing of the Chroneme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2* (or *Actes de la 9e Conférence Annuelle*, AKSE, 1985, Chantilly, France.).

접수일자: 1998년 12월 3일

게재결정: 1998년 12월 22일

▶ 유만근(Mahn Gunn Youe)

주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소속: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2) 760-0255

e-mail: youemah@yurim.skku.ac.kr